

〈五倫全傳〉序跋을 통해 본 小說의 典教的 機能

이 채 연*

차 례

- I. 머리말
- II. 訓民政策의 文學的 形象化
- III. 〈五倫全傳〉序跋文의 典教性
- IV. 〈五倫全傳〉序跋文 記錄者의 小說觀
- V. 마무리

I. 머리말

조선조 사대부들에 있어서 소설은 사림의 등장 이후 經學중심의 사고로 인해 부정적인 것으로 폄시되어 왔다. 道文一致의 재도론자들이 경학에서 제시하는 규범만이 바람직한 삶의 방식이라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많은 유자들은 소설의 창작에 관심을 가졌고, 그 나름의 이유를 책의 서문이나 크 밖의 글을 통해 밝혔다. 소설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던 이들의 창작이유는 技廣과 博學이라는 것으로 모아진다. 인간성정의 자유로운 발산과, 경서의 세계에서 찾을 수 없는 지식의 축적은 전범적 삶의 울타리를 뛰어 넘어 세계에 대한 인식을 보다 심화·확대시킨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산문정신의 확대는 운문의 세계에서는 맛볼 수 없는 정신적 쾌락을 수반하는

* 釜山水產大學校 國語國文學科 講師

것이였다.

조선조에 있어 소설을 둘러싼 긍정·부정 양론의 시비는 첫째, 거짓으로 꾸며진 상상의 세계를 인정하느냐의 여부와 둘째, 문학이 갖고 있는 본래의 효용성-쾌락적 기능과 교훈적 기능 중 어디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느냐에 모아진다. 소설부정론자들은 소설의 쾌락적 효용성을 두고 ‘神怪不經之說, 荒誕鄙俚, 淫亂’하거나 ‘鑿空構虛’하여 美風良俗을 해치는 것으로 인식했다. 반면에 소설긍정론자들은 소설이 ‘破閑, 寓意的 諷刺’ 및 ‘박학과 교훈적 가치’까지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즉, 소설부정론자들은 소설이 거짓으로 꾸며진 것일 뿐만 아니라 단순한 쾌락만을 가져다주는 것 이외에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본 반면에, 소설긍정론자들은 지적·비판적·감동적 측면에서의 여러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소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그 원인이 다양한데 부정론자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첫째 거짓으로 꾸며진 이야기라는 것이며, 둘째 내용이 불경스러워 인간의 성정을 방탕케한다는 것으로 모아진다. 전자의 경우는 ‘述而作’의 태도를 인정치 않는에서 비롯된 것으로 소설장르 자체를 근원적으로 인정치 않으려는 태도이다. 후자는 소설장르는 인정하되 그 내용을 문제삼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를 두고 지금까지 조선조 소설시비론을 연구한 논자들은 전자나 후자를 같은 비중으로 다룸으로써 조선조에 있어서 소설장르가 사류층에 중요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본고가 생각하기에는 조선전기에 이미 소설에 대한 이해의 폭은 상당히 확산·심화되어 있었다고 보아진다. 소설부정론자들이 겉으로는 허구로 꾸며지는 양식 그 자체를 문제삼음으로써 소설의 독자성을 인정치 않으려 하지만, 실제로는 소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내용을 문제삼는 것이다. 소설이 ‘거짓으로 꾸며진 작위의 세계’를 다루고 있다손치더라도 그것이 인륜세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유자들은 물론 국가기관에 의해 간행·유도되었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 문제를 <오륜전전>의 역자와 간행자의 소설에 대한 태도를 통해 검증해보고자 한다.

정신문화원에 소장된 <오륜전전>에는 嘉靖 辛卯 孟冬(중종26년, 1531년 10월)에 洛西居士가 쓴 序와 柳彥遇가 충주 자경당에서 쓴 跋文(가정 29년 경무 25년, 1550년 5월)과 保庵散人 沈守慶의 발문, 그리고 재령군수 韓希嵩이 1665

년 9월에 쓴 발문 등과 같이 서로 시기를 달리하는 서발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이는 이 작품이 오래동안 인구에 회자되면서 여러번 간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전하는 서발만을 놓고서라도 〈오륜전전〉이라는 동일 작품을 두고 평가한 논자들의 개별적인 문학관은 물론, 넓게는 시대에 따라 문학작품을 평하는 안목이 다름을 식별할 수 있을 것이다.

〈오륜전전〉에서 논의 될 수 있는 것은 작품의 형성·번역문제·간행·주제·효용문제 등이다. 〈오륜전전〉의 형성문제는 번역자의 의도와 같이 논의될 성질로 모체가 되었던 〈五倫全備記〉라는 중국 희곡을 번역할 수 있는 능력과, 그 번역 동기를 밝히는 일에 논의의 초점이 모아질 수 있다. 일반적인 경우처럼 흥미분위로 번역하게 되었는지, 아니면 특정한 이념을 전달할 목적에 의해서인지를 살필 필요가 있다. 서발문을 통해서 볼 때 특히 〈오륜전전〉은 번역이 ‘백화→한문→한글’과 ‘한글→한문’의 상반된 문자선택의 과정이 나타나고 있고, 또 역자의 문학관에 따라 윤색이 일어나는데 이 또한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작품의 주제와 간행은 역자의 번역 의도를 헤아려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는 〈오륜전전〉을 번역하고 간행함으로써 노릴 수 있는 효과가 어떤 것이었나 하는 점을 살필 수 있다. 본고는 논의의 초점을 여기에 두고 서발에 나타난 역자 및 간행자의 소설의식을 살피고자 한다.

〈오륜전전〉의 역자들은 그 존재가 크게 알려지지 않은 儒者들이고, 간행자는 敎民官 출신의 사대부들이다. 따라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의 대상은 작품의 주제적인 면이 아니었을까 한다. 본고에서는 〈오륜전전〉을 번역하고 간행한 이들의 의도가 대백성교화에 그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고, 문학을 典敎的차원¹⁾에서 이해하고자 한 이들의 의도와 당대의 시대 배경적인 면을 살피고자 한다. 나아가 조선조에 있어 소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소설양식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체와 내용에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것이다.

1) 여기서 논의되는 文學의 典敎性이란 『中文大辭典』에 나오는 “當敎也又典籍敎化也”, “觀君皆儒士也習何典敎”의 뜻을 참고로 하였다. 본고에서는 ‘책을 창작, 간행하여 백성을 교화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문학적 행위’를 문학의 진교성이라 부르기로 한다.

II. 훈민정책의 문학적 형상화

낙서거사에 의해 <오륜전전>이 처음 번역되고 유언우에 의해 간행되던 중종 연간은 세종이후 각종 문물이 정비되어 정치체제와 국가 이념이 안정기에 접어든 시기이다. 이 당시는 위에서부터의 개혁을 통한 상층부의 지배이데올로기인 유교 이념을 일반 백성들에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각종 訓民政策이 시행되던 때다.

이런 일련의 정책은 국가주도에 의해 시행되거나, 지방향리 중심의 자치조직을 중심으로 시행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모두 백성의 교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천적인 면을 갖고 있는 것이었다. 대백성교화에 바탕을 둔 조선조의 훈민정책은 유교적 이데올로기의 구축과 확산이라는 이념지향적인 지평에서 시행되고 있었다. 이는 지배이데올로기의 공고화라는 측면과, 정치적이념의 일상생활화라는 유교의 현실주의적 세계관에 기인한다. 때문에 바람직한 삶의 전범으로서 강상의 윤리가 지속적으로 강조되던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삼강오륜을 백성들에게 주지시켜야겠다는 의도는 국초 왕의 즉위교서²⁾에서 명시한 이래 꾸준히 강조되어 왔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각종 출판물이 보급되기도 했다. 세종 16년(1434)에 초간 『삼강행실도』의 간행을 시발로 훈민정책이 교화의 차원에서 본격화 되었다. 집현전 부제학 설순이 편찬하고 權探가 쓴 서문에 나타난 세종의 교시를 살펴보면,

삼대의 정치는 모두 인륜을 밝히는 것이었는데, 후세에는 교화가 침체되어 백성들이 친목하지 않아서 군신, 부자, 부부의 큰 인륜이 모두 타고난 본성이라는 것을 몰라 항상 박한데로 흐른다. 그러나 때로는 탁월한 행실과 높은 절개가 있어 세속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사람의 이목을 모으는 자가 또한 많다. 나는 그 특이한 자를 뽑아서 그림을 그리고 찬을 짓게 하여 서울과 지방에 반포하고자 하니 이는 어리석은 부부가 모두 쉽게 보고 느끼어 흥기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으로 백성을 교화시키고 풍속을 이루는 한가지 방법이다.³⁾

2) 태조실록 권1, 태조 원년 7월 정미조의 즉위 교서가 이에 해당한다.

3) 三代之治 皆所以明人倫也 後世教化陵夷 百姓不觀 君臣父子夫婦之大倫 率皆昧於所性 而常失於薄間 有卓行高節 不爲習俗所移 而聳人觀聽者亦多 予欲使其特異者 作爲圖贊 頒諸中外 庶幾愚夫愚婦皆惑而興起 則亦化民成俗之一道也(權探, 三綱行實圖序 『東文選』 卷九十三)

이 글에서 가장 바람직한 교화의 방법은 백성 스스로 각성케하는데 있다고 보고 있다. 백성들이 스스로 인륜세교의 바람직한 길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수준에 합당한 방법으로 경민케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구체적인 덕목을 깨우치고 실천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그림과 글을 곁들인 책자를 발간케한 것이다. 『삼강행실도』는 시청각적 효과를 위해 오늘날의 만화식 구성과 같이 되어 있다. 그려진 삽화는 이야기의 제일 긴장된 장면을 일면에 그린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강조되어지는 것을 계기적 흐름으로 그리고 있어 “披說其圖 以想形容 諷詠其詩 以體性情”의 효과를 꾀하고 있다.⁴⁾

『삼강행실도』는 조선조의 어느 책보다도 빈번하게 발간되었다.⁵⁾ 이는 백성들을 교화시켜 통치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진다. 『삼강행실도』에 앞서 『孝行錄』이 세종 10년(1428) 집현전 최초의 간행물로 발간되고 이어 많은 유교 윤리서들이 잇달아 간행 보급된 것은 유교이념을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확산시켜 통치효과를 극대화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각종 윤리의 전범서는 官 주도로 중앙정부에 의해 정책차원에서 간행되기도 하고, 목민관 출신에 의해 지방에서 출간되기도 했다. 또한 民 주도로 지방향리의 자치조직을 통해 의식개혁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런데 목민관이나 지방향리에 의해 간행된 서적 등에는 대백성교화에 효과적인 각종 문예물이 많았다. 문예물의 창작과 간행은 규범적인 유교의 의식과 덕목을 보다 손쉽게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보아진다.

4) 류탁일, 삼강행실도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11집, 부산대, 1974, p. 92.

5) 『三綱行實圖』는 성종 초에 연해 간행되었다가 성종 21년(1490)에 재간됨으로써 한문을 모르는 일반 백성들이 더욱 쉽게 배우고 깨우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이후에도 중종 5년(1510)에 이르러 이 삼강행실도를 총 2940부나 찍어 각 도에 배포한 바 있으며, 중종 9년(1514)에는 등장인물을 중국인에서 한국인 위주로 바꾸어 편집한 『續三綱行實圖』가 간행되었다. 중종 13년(1518)에 김안국이 삼강행실도의 편집체제를 그대로 모방하면서 장유유서와 봉우유신의 덕목을 강조한 『二倫行實圖』를 간행하였다. 이밖에도 『東國新續三綱行實』을 비롯한 많은 이본과 재간이 있었으며, 특히 삼강행실도는 세종조의 초간본을 필두로 하여 철종조까지 무려 19회나 발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류탁일, 앞의 책 pp. 96~97.과 『이륜행실도·경민편』, 단국대 부설 동양학연구소, 1978. 참조)

III. 〈오륜전전〉 서발문의 전교성

현전하는 〈오륜전전〉은 不分券 7장의 필사본으로 작품과 함께 서발이 수록되어 있다.⁶⁾ 서발에 나타난 기록으로 볼 때 〈오륜전전〉은 1531년 낙서거사가 세간에 나돌던 한문본 저본을 바탕으로 한글로 번역한 것을 1550년 정주, 청주목사를 지낸 柳彥遇가 충주에서 간행하였다. 그후 재령지방의 孫廷俊이 다시 한문으로 번역하고, 이를 구해본 재령군수 韓希高이 1665년에 간행하여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 즉, 〈오륜전전〉의 내용을 윤색하고 번역하는 작업은 閑居하는 儒者들이 했지만, 이를 널리 유포시켜 그 효용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한 이들은 牧民官 출신의 사대부들이다.

〈오륜전전〉은 明의 丘濬이 지은 〈五倫全備記〉를 축약·윤색한 작품인데, 1720년 高時彦에 의해 우리나라에서 〈伍倫全備諺解〉로 번역되기도 했다.⁷⁾ 때문에 낙서거사가 번역한 〈오륜전전〉은 教誨廳에 의해 번역이 되기 훨씬 이전에 번역된 것이다.⁸⁾ 시기적으로 16세기 초는 금오신화가 지어진 후 반세기 조금 지난 시기로 조선소설사의 흐름으로 볼 때, 公論으로는 소설부정론이 팽배했지만 음성적으로는 많은 사대부가 소설에 관심을 갖고 창작 애독하던 시기이다. 이 때의 서사물로서는 〈王郎返魂傳〉, 〈安憑夢遊錄〉, 〈書齋夜會錄〉, 〈崔生遇眞記〉, 〈何生奇遇錄〉, 〈元生夢遊錄〉, 〈達川夢遊錄〉, 〈大觀齋夢遊錄〉, 〈琴生夢遊錄〉등과 내용이 전하지 않는 〈薛公瓚傳〉이 있다. 이러한 작품들은 영정적 내용을 다루거나 비현실성이 강한 傳奇性으로 인해 인륜세교와 인간의 성정을 황탄하게 하는 음설지사로 취급되기도 했다.⁹⁾ 이에 비해서 〈오륜

6) 현전하는 〈오륜전전〉은 안동의 의성김씨 문중에 보관되어 오던 것으로 권두 첫행과 끝행 및 뒷표지 안쪽에 川上宗家라 묵서되어 있다 한다. (심경호, 오륜전전에 대한 고찰, 애산학보, 1988)

7) 전광현, 『오륜전비언해』, 아세아문화사, 1982, pp. 1~9 참조

8) 심경호, 앞의 논문, p. 113.

9)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의 글들을 참조.

이현홍 편저, 고소설연구입문, 세종문화사, 1990.

오춘태, 조선전기의 소설의식, 어문논집 23집, 고려대, 1982.

_____, 고소설음호론연구, 고전문학연구 3집, 고전문학연구회, 1986.

윤성근, 유학자의 소설배경, 어문학 25집, 1971.

이문규, 국문소설에 대한 유학자의 비평의식, 한국학보 31집, 1983.

송진한, 조선조 양반사대부층의 소설관 고찰, 개신어문학연구 7집, 충북대, 1990.

전전)은 비현실성, 전기성, 음란성 등이 거세되어 있어 같은 시기의 서사물이면서도 내용적인 면에서는 판이한 성격을 보여준다. 오히려 〈오륜전전〉에는 다른 소설들과는 달리 무미건조한 내용의 교훈성만 강조되고 있다. 그 이유는 〈오륜전전〉의 창작자인 낙서거사의 서에 나타난 창작동기와 문학관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五常은 인간이 반드시 지켜야 할 도리이나, 현재의 풍속은 그렇지 못하니 이를 개탄하며 교화의 절박성을 통감함.

② 당시의 무식쟁이들이 유행하는 중국소설을 한글로 번역하여 돌려보고 있는데 이는 음설망탕한 것들이다.

③ 오륜전 형태의 이야기는 인간의 본연지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현재 집집마다 두루 읽히고 있다.

④ 그런데 서술이 뒤죽박죽이고 내용에 야비한 것이 많아 이를 윤색하니 읽는 자로 하여금 공경하는 마음이 들도록 하였다.

⑤ 諺文으로 번역해 부인네들도 읽게 하고 대중에게 전하다.

낙서거사의 창작동기를 통해서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미루어 짐작컨대 이미 중국의 전기류나 연의류 소설들이 전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한글로 번역되어 세간에서 읽혀지고 있었다는 점¹⁰⁾과, 〈오륜전전〉의 모체라 할 수 있는 〈오륜전비기〉도 역시 상당한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점이다.¹¹⁾ 그런데 그 내용은 교훈적인 것을 담고 있으면서도 표현방법이나 서술태도가 다른 傳奇的 소설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윤색을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는 기존의 소설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던 셈이다. 그럼에도 낙

10) 이러한 점은 기대성이 선조 2년(1569)에 〈전등신화〉를 비롯한 중국연의류소설에 대한 폐해를 지적하길, “전등신화는 비루하기 짝이 없는데 도서관에서 사사로이 재료를 공급하여 판본을 새겼으니 유식인들이 마음 아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자들이 그 판본을 가져다가 여항지간에 끊임없이 서로 다루어 새겨 보니 그 이야기는 남녀의 淫談과 神怪不經之說이 많이 있습니다.”라 한 점으로 보아 당시에 이미 중국 소설이 음성적으로 읽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 21, 선조 2년 6월 임진조). 그런데 낙서거사의 글은 중국소설이 단지 유통되는데 그치지 않고 한글로 번역되어 유포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소설대중화가 사대부 계층 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층에 까지도 확대되어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11) 洛西居士序 “... 이 책은 지금 다루어 전해 집집마다 두고 너나 없이 읽고 있으니...” (是書時方爭相傳習 家藏而人誦)

서거사는 소설이 허구로 구성되어 있다는 소설장르에 대한 인식은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연성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교화의 한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소설의 효용가치도 인정하고 있다. 때문에 그가 문제삼고 있는 것은 소설 그 자체가 아니라 소설의 표현방법 상 기술적인 문제인 전기적, 환몽적인 구성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륜전비기>의 구성방식과 표현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윤색하고자 한 것은 그 내용을 중시했기 때문이다. 이는 낙서거사가 소설을 전교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은 소설을 전교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는 다른 이의 발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낙서거사가 쓴 <오륜전전>을 구하여 이를 간행한 유언우의 발을 보면,

“쓰인 글귀는 적지만 풍속을 도담게 할 방도는 옛 군자의 책에 가깝다 하겠다. 사람들이 이 글을 잘 읽어 도리에 어긋나는 일들이 바로 잡아 진다면, 교화에 보탬이 되는 것이 어찌 열겠는가.”(其言雖不過若干 而其敦化善俗之方亦庶幾乎古君子之書矣 噫 使世之人 存心於此篇 而溘事於是典 則其所補豈淺淺哉)

하여 <오륜전전>의 간행이 警民과 風俗教化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유언우는 해주, 정주목사 시에 <朱子書節要>를 두 번이나 간행한 적이 있는 인물로 주로 목민관으로 외직이 많이 근무하여 백성 교화의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깊이 절감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책의 간행 이유를 찾을 수 있게 한다. 이는 각종 훈민서나 훈민가요의 작가 혹은 간행자가 주로 목민관 출신이 많다는 것과 일치하는 점이라 주목된다.¹²⁾

소설양식은 일반적으로 시가와와는 다른 이야기 형식이라는 점에서 통속성의 서술문면에로의 표출은 자연스러운 技癢의 부산물이 될 수 있다. 때문에 장황한 서술의 진행을 끝까지 지켜보게 하려면 화려한 수식이나 골계담, 색정적인 염정담이 들어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표면에 드러나는 재미의 요소를 제거하고 교훈적인 내용만을 강조한다는 것은 소설의 전교성을 극단적으로 강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독자층의 확보, 혹은 창작동기에 걸맞는 교훈성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12) 이러한 관점에서 시조를 파악하고자 한 연구로 조태훈의 「훈민시조연구」(부산대학교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9.)가 있다.

의문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륜전전〉이 오랜 기간에 걸쳐 간행될 수 있었다는 점은 수용자의 요구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간행자의 문학적 기호나 교화의지에 의한 일방적인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따라서 〈오륜전전〉의 윤색과 번역은 다분히 유교이념의 확산이라는 목적지향적인 의도에 의해서라 할 것이다. 낙서거사의 윤색과 번역태도가 유교이념의 신봉자요 수호자로서의 입장을 견지한 것이라면 유언우와 한희설의 발문에 나타난 간행 태도는 목민관으로서의 치민방략에 힘쓰는 실천자로서의 면모가 나타나 있는 것이다.

조선조 소설의 효용론 시비는 소설창작 혹은 독서행위를 재미의 차원으로 이해하느냐, 교화의 차원에서 이해하느냐 하는 문제에 귀결된다.

이 양자의 관점 중에서 어느 곳에 보다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소설을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생긴 것이다. 〈오륜전전〉과 비슷한 시기에 간행된 申濩의 『企齋記異』 跋文을 통해서 이러한 점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옛날부터 불후한 것은 셋이 있는데, 立言이 그 하나이다. 經典과 史書와 諸子와 문집에서 내려 말하건대, 齊諧와 稗官 같은 것이 이미 그러함이고, 이러한 책들은 한갓 언어와 문자의 말단에만 힘을 경주해 의리에 돌아보건대 공허하니, 고풍을 논외하는 선비가 어찌 넉넉히 위하겠는가? 奇異 한 帙은 바로 지금 釐成事 奇齋 相公이 저술한 것이다. 일찌기 글쓰기로 노닐며 기이함에 뜻을 두지 않았으나, 스스로 기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지극함에 이르러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쁘게 하며, 사람으로 하여금 놀라게 하여, 세상에 본보기로 될 수 있는 것이 있고, 세상에 경계가 될 수 있는 것도 있었다. 백성의 도리를 붙들어 세위 儒敎에 공로가 있게 되는 까닭은 하나나 둘이 아니어서 저 보통 小說이라는 것과 같은 해로 이야기할 수 없으니, 세상에 성행함은 당연하다. 다만 그릇된 사본을 이어받아 호사가들이 병통으로 여겼다. 校書官 著作 趙君 完壁氏는 나와는 급제 동기인 진사이다. 함께 상공의 문하 출신인데, 하루는 운각에서 만나 말이 그것에 미치지, 나에게 교열을 부탁하여 급히 관각에 새기고자 하였다. 나는 어려워하며 말했다. “그대의 이 일은 매우 좋으나 가만히 생각건대 상공께서는 바야흐로 관을 관장하시니, 알지 못하는 자들이 상공의 생각에서 나왔다고 말한다면 나쁜 혐의를 받지 않겠소?” “아니오, 상공의 공명과 사업은 묘당에 으뜸이고 도덕과 문장은 유럽에 영향을 끼쳤소. 지금 이 편을 평생 저술에 견주건대 태산에 한 터럭 한 올같은 정도도 못되니, 어찌 죽히 상공께서 가벼움이나 무거움이 되겠소? 그리고 즐거움을 남과 더불어 공동으로 하는 것이 나의 평소 뜻이오. 숨겨두고 드러내지 않음을 나는 차마 못하겠소. 옛 시에도 이르기를 “한 시대에 사람을 헤아리지 못하면 내 어느 겨를에 혐의를 구별할까? 라 하였소” 나는 말했다. “그대의 말씀이 지당하오.” 인하여 간략히 그 말을 서술하여 발을 삼는다.¹³⁾

13) 소재영, 「기재기이연구」, 민족문화연구소, 1990. 참조

위 글은 『企齋奇異』의 저자 申光漢의 문하생인 趙完壁과 申澣의 대화가 담겨 있는 발문인데 이 글은 당시 사대부들의 소설의식을 살필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1553년에 신호에 의해 도서관에서 간행된 이 책은 〈安憑夢遊錄〉, 〈書齋夜會錄〉, 〈崔生遇眞記〉, 〈何生奇遇錄〉의 네 편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작품들은 夢遊錄과 傳奇의 형태를 띤 것으로 당시 유통되던 몽유록이나 전기에 비할 때 그 성격상 비슷한 데가 많다. 그런데 신호의 발문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부분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 1) 골계담이나 패관류를 의리에 위배된 말단이라는 점.
- 2) 『기재기이』에 수록된 작품은 세상에 경계가 되는 내용이라는 점.
- 3) 그런 점에서 기존의 소설과는 다르다는 점.
- 4) 책의 출간이 스승 申光漢의 명성에 오점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는 점.
- 5) 그러나 申光漢의 인품이 묘당에 자자하니 책의 간행은 오점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즐거움을 공유해야 한다는 점에서 도서관에서 간행한다는 등이다.

신호의 발문 중에서 알 수 있는 점은 『기재기이』라는 개인의 소설집이 도서관이라는 국가 기관에 의해 간행될 수 있었다는 점과, 책의 내용이 기존의 소설과는 달리 유교이념을 전하는데 바람직한 것이라 하면서도 책의 발간에 앞서 망설이고 있다는 점이다. 전자의 경우 기대성이 지적한 것처럼 개인의 글들이 도서관을 통해 발간될 수 있는 당시의 현실로 볼 때 소설이 이미 상당히 확산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후자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소설의 간행이 유자의 바람직한 태도는 아닐지도 모른다는 우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간행하는 이유는 그 내용이 기존의 齊諧와 稗官처럼 언어 유희의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성정을 감발하고 교화에 유익할 것이라는 판단에 두고 있다. 결국 『기재기이』는 “세상 사рам들로 하여금 기쁘게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이 진술은 소설은 진부한 것이 아닌 참신한 소재를 작품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유교적 도덕률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함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기재기이』의 내용이나 표현방식이 당대의 다른 전기류나 몽유록에 비해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한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놀라게 하는” 쾌락성 못지않게 그 내용상의 교훈성이 중시됨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낙서거사의 소설관은 이들보다 더욱 전교성을 중시하는 쪽에 서 있다. 『기재개이』의 창작자인 신광한이나 발문자인 신호의 경우, 화려한 문사나 비현실적인 몽한담이 교훈적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것을 인정하고자 하는 쪽이라면, 낙서거사는 그것조차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쪽에 서 있는 것이다. 이를 볼 때 낙서거사가 유행하던 〈오륜전비기〉 저본에서 독서층들을 자극시켰음직한 화려한 수식어나 서술, 해학성을 삭제, 윤색 (“그래서 나는 거듭 궁리하여 고의로 말뜻을 흐린 것을 윤색하고 말이 천하여 도리에 안맞는 것은 다듬었고, 중복되고 쓸데없는 말과 우스개 야비어는 모두 없앴다”)한 채 한글로 번역한 것은 오로지 오류이라는 특정 윤리만을 강조하고자 그의 전교적 소설관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IV. 〈오륜전전〉 서발문 기록자의 소설관

조선조의 지배계층은 전국 이후부터 유교이념에 입각한 대백성교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 중 가장 두드러진 것 중의 하나가 문자정책과 각종 서적의 편찬사업이라 할 수 있다.

훈민정음의 창제를 계기로 백성들이 문자생활권 안으로 들어오게 됨으로써 유교적 왕도정치가 보다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유교적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근간이 되는 삼강오륜과 성리학적 명분론, 의리론 등을 한글을 통하여 백성들이 쉽게 익힐 수 있게 함으로써 훈민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도모할 수 있었던 것이다. 〈오륜전전〉의 번역·윤색·간행도 이러한 일련의 사회분위기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한문→한글’에로의 번역과정은 〈오륜전비기〉를 〈오륜전전〉으로 언해화하는 과정이다. 낙서거사가 번역한 뒤 1696년(숙종 22년) 교회청에서 언해가

시작되었고, 사역원의 한학 3서로 채택되어 譯科 한학 초시의 서책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즉 <노걸대>, <박통사>와 더불어 <오류전비해>는 중국어 교재의 역할을 한 것이다.¹⁴⁾ 그런데 <오류전비기>가 역관들의 학습교재로 채택되기 훨씬 이전에 유행하였다는 사실은 학습서보다는 교양독서물로의 가치를 먼저 인정받고 있던 셈이다. 당시 이미 중국 전기소설류가 조선에서 어느 정도의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미루어 짐작컨데 <오류전비기>도 다른 전기류와 같은 입장에 있었던 것이다.

내 보니 민간의 무식쟁이들이 언자를 배워 노인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배껴 밤낮 떠들고 있는데, 이석단 취취의 이야기 같은 것은 음설망탄하여 도무지 볼 게 없다. (余觀閭巷無識之人 習傳諺字 臆書古老相傳之語 日夜談論 如李石端翠翠之說 淫說妄誕 固不足取觀)

위 글의 내용을 통해서 볼 때 당시는 식자층에 의해서만 소설이 애독되었던 것이 아니고, 한문에 능숙하지 못한 일반 백성들도 중국소설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식자들이 중국소설을 언해하기도 한 것이다. 낙서거사는 이러한 상황을 자신의 개인적인 문학관의 입장에서 볼 때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다. 단순한 지적 쾌락의 욕망을 추구하는 독서상황을 개탄하면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 대폭적인 윤색작업을 한 것이다. 나아가 이를 번역하여 한문을 모르는 일반인에게도 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책은 도리를 모르는 자가 지은 데서 비롯되어 어휘구사가 아주 거칠고 이야기 서술이 뒤죽박죽이다. 그래서 나는 거듭 궁리하여 고의로 말 뜻을 흐린 것은 윤색하고 말이 천하여 도리에 안 맞는 것은 다듬었고, 중복되고 쓸데없는 말과 우스개 야비어는 모두 없앴다. … 그리고 또 언자로 번역해 부인네들처럼 문자를 모르는 사람들도 읽기만 해도 또렷이 알 수 있게 하였다. (但此書出於不甚知道者所爲 故措辭荒拙 敘事舛錯 余於是反覆窮究 有意而不暢於語者潤色 語俚而不合於道者釐正 凡重復浮誕之辭 淫戲俚野之說 並斥削而不載 …故又以諺字翻譯 雖不識字如婦人輩 寓目而無不洞曉 然豈欲傳於重也 只與家中妻子輩觀之耳)

위의 진술을 놓고 볼 때 낙서거사는 유행하던 중국 화본소설 <오류전비기>를 한문본으로 윤색하여 새로이 재구성한 작업과, 이를 한글로 번역하는 두 가지 작업을 한 것이다. 특히 도리에 맞지않는 말과, 우스개 야비어를 제외

14) 전광현, 앞의 책, pp.1~9. 심경호, 앞의 논문, p. 115.

시키고, 이를 다시 한글로 번역하여 주위의 부녀들에게 읽히고자 한 점은 오륜이라는 특정 윤리를 강조하고자 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교훈성을 중시한 전교적 소설관의 소산으로 낙서거사가 〈오륜전전〉에서 쾌락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이를 다시 번역하고자 한 의도는 궁극적으로 대백성교화에 있다 할 것이다.

한편 백성들에 대한 교화의 필요성은 일반 유자들 뿐만 아니라 사림 출신의 목민관에 의해 적극적으로 제기되었다.¹⁵⁾ 중종13년(1518) 경상도 관찰사를 마치고 중앙관리로 돌아온 金安國은 왕에게 지방의 풍속 교화를 위해 각종 유교 윤리서를 언해 배포할 것을 주청했다.

신이 경상도 관찰사가 되어 이 도를 관찰해 보니 인심과 풍속이 극도로 퇴폐하였습니다. 이제 임금께서는 풍속을 변혁하려는 데에 뜻이 있으시므로 신은 지극하신 뜻을 받들어 완악한 풍속을 고치려 하옵는데, 삼가 그 요점을 생각해 보건대, 옛사람의 책으로 풍속을 좋게 할 수 있는 것을 취하여 자세히 언해해서 도내에 반포하여 가르쳤으면 합니다. … 「여씨향약」, 「정속」 등과 같은 서적은 바로 풍속을 돈후하게 하는 책입니다. 향약은 비록 「성리대전」에 실려 있으나 주해가 없으므로 중국에서 먼 지방 사람들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신은 자세히 언해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보기가 하면 즉시 해독하게 하였으며 「정속」 역시 언문으로 번역하였습니다.¹⁶⁾

김안국은 향약의 보급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윤리서, 농서, 의술서

- 15) 목민관들이 백성교화를 임무수행의 중요한 업무로 생각했다는 사실은 중국인 朱逢吉이 편저한 『牧民心鑑』이 우리나라에서 전래되어 목민관의 가장 중요한 심득서가 되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목민심감』은 수령이 지켜야 할 7가지의 덕목 즉 守令七事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 내용 중 善化章에 厚風俗과 立教條가 있어 三綱五常을 大要로 하는 교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목민관들은 임지로 부임하기 전 관찰사나 절도사를 한 경험이 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왕 앞에서 『목민심감』을 시강하였다. (성종실록, 권73, 7년 11월 28. 무진조) 조선전기에는 본국인에 의해 만들어진 『牧民의 書』가 없어 목민자의 주요 지침서가 된 책이다. 이 책의 영향에 의해 조선후기에 본국인에 의해 목민 심득서가 만들어지는데 『居官要覽』, 『居官大要』, 『臨官政要』, 『牧民大方』, 『牧民心書』가 그것이다. 이런 점으로 볼 때 백성교화는 수령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 (김성준, 『목민심감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0. 참조)
- 16) 臣爲慶尙道觀察使 觀其道人心風俗 類弊乃極 今者 上方有志於轉移風俗 故臣欲體至意 變革頑風 而竊思其要 取古人之書 可以善俗者 詳加諺解 頒道內以教之… 如呂氏鄉約正俗等書 乃敦厚風俗之書也 鄉約雖載於性理大全 而無註解 蝦方之人 未易通曉 故臣乃詳其諺解 使人接目便解 正俗亦繙以諺字 (「中宗實錄」 卷三十二, 中宗 13年 4月 己巳條)

등의 책들도 언해할 것을 주장하는데, 이는 모두 백성교화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백성들을 교화하기 위해서는 직접 백성들을 개유하고 지도하는 교화가 가장 으뜸이라고 생각하여 권유문을 지었다.

백성을 교화시켜 아름다운 풍속을 이루게 하는 것이 비록 기대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개유하고 지도하며 권장하고 경계하는 것을 그만둘 수는 없는 일이다. 그래서 여기에 서산 진선생의 두 권유문에서 그 요지만을 가려 뽑아 하나로 합쳐 만들어서 촌락에 게시하노니 백성들에게 바라는 바는 부자, 자효, 형우, 계공, 부화, 처순, 언필충신, 행필충신, 행필은공, 족당유사, 향여유예, 정봉송상 등이니 한 도가 변해서 도의가 있는 나라로 되게 하여 위호 성군이 백성을 위로 하시고 신하를 공격하시는 덕화를 받게 되면 어찌 아름다운 일이 아니라. 오직 너희 백성들은 각각 마땅히 힘쓸지이다.¹⁷⁾

위 글을 통해서 볼 때 대백성 교화의 방법으로 권유문을 만들고, 이를 한글로 번역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힘써 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권유문은 내용이 딱딱하여 소통전달의 효과면에서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기 힘든 점이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백성들로 하여금 항상 외고 읊어서 입에 익히기'하기 위해 시가양식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 중 하나가 훈민시조라 할 수 있다.¹⁸⁾ 훈민시조의 경우 이들 작품의 작가들이 밝히고 있는 주나서의 글을 통해 보면 작품 창작의 목적이 보다 분명히 드러난다.

단가 16수는 곧 선조 때 상신 정철이 강원감사로 있을 때 지은 것이다. 이는 진고령의 유문 여러 조목에 군신, 장유, 봉우의 세가지를 가한 것이니, 백성들로 하여금 항상 외우고 익히며 읊어서 입에 익히게 하면 사람의 성정을 감발시키는데 도움이 없지 않을 것이므로 이에 부각하여 훈민가라 한다.¹⁹⁾

나는 마음 속으로 말세의 인심이 날로 변하는 것을 탄식해 왔다 한밤중에 하늘을 보면서 생각하기를 '옛 가르침을 배우는 자는 간혹 물욕에 가려 선량한 마음을 잃기도 하나 옛사람의 책을 열면 두려워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다. 그러나 문의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사물에 따라 변하여 끝내 하류에 그치고 만다. 이 어찌 심히 슬퍼할 일이 아니겠는가'라 하였다. 이런 연유로

17) 국역 송강집, 상 별집 권1(삼안출판사, 1974), p. 152.

18) 훈민시조가 갖는 양식적 특성과 그 효용성을 표방하는 산문 문예물의 경우에도 적용되리라 본다. 본고의 이러한 관점은 조태흠의 『훈민시조연구』의 논지에 힘입은 바 크다.

19) 국역 송강집, 권7, p. 460.

내가 품은 생각을 진술하여 〈오륜가〉를 짓고 삼장의 난을 지어 권정의 뜻을 보이코자 하였다. 이제 신은 답론하는 저녁에 외람스러이 좌우에 이것을 올리니 원하건대 여러 군자들이 전하여 보고 가려 쓸 수 있다면 어떠하겠는가.²⁰⁾

정철(1536~1598)의 글이나 박선장(1555~1617)의 글은 날로 혼탁해져 가는 인심을 안타까이 여기고, 이를 경계하여 풍속을 교정하기 위해 오륜의 내용이 담긴 시조를 창작했다는 것이다. 결국 대백성 교화의 효과적 전달 수단이라 할 수 있는 한글을 이용하여, 강상의 윤리를 외우기 쉽고 알기 쉽게 전달하고자 한 결과 간략한 시조장르를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²¹⁾

그의 경기체가의 〈오륜가〉에서도 인륜세교의 가장 중심이 되는 오륜의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경기체가라는 장르가 전달의 효용성이란 입장에서 보면 이미 시대성을 상실한 것이지만, 유교이념의 문학적 향상화란 점에서 보면 국가 이념이 문학적으로 형상화됨을 살필 수 있게 한다. 〈오륜전전〉 또한 강상의 윤리를 전달하고자 한 점에서 볼 때 시가장르와 창작태도에서는 같은 지평선상에 있다. 시가장르가 전달 내용을 함축하여 기억 구술할 수 있기에 편리하게 한 반면에, 산문은 이야기 형식을 빌림으로써 오륜의 윤리를 더욱 개연성 있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교적 차원에서 소설이 차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1531년 〈오륜전전〉을 지은 낙서거사와 1550년 이를 간행하고자 한 유언우와, 발문을 써준 심수경의 문학관도 문학을 대백성교화나 치민방략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가장르 작가들의 문학관과 동일한 지평위에 서 있다. 낙서거사는 국가이념의 수호자인 士의 입장에서 주위사람들에게 윤리의식을 고취하려 했고, 유언우는 목민관의 입장에서 국가이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 〈오륜전전〉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널리 선양한다는 뜻에서 간행하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오륜전전〉은 당시에 읽혀지던 〈소학〉, 〈동몽선습〉과 같이 수신の内容을 담고 있지만 이를 소설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교 전범의 허구적 형상화에로의 한 단면을 살필 수 있다.

20) 某 竊歎叔季人心日渝 中宵仰屋 以爲學古訓者 雖或爲物欲所蔽 喪其良心 而聞古人書 卽湯然覺悟者有之 其不曉文義者 因物有遷 終於下流而止耳 此非可哀之甚者耶 因述鄙懷 作五倫歌 又作三章之亂 以示勸懲之義 今者講信之石 猥進于左右 幸願諸君子 垂覽採之如何 (『水西集』 卷之 四, 五倫歌 小序).

21) 조태훈, 앞의 논문, pp. 39-48.

반면 1665년 한희설이 재령군수로 있으면서 그 고을의 노유 손정준의 한 문본을 구하여 이를 간행하였다.

수십년전 언서 사이에 <오륜전진>을 우연히 보고 감탄하여 진서로 번역해 세상에 전하려 하였으나 뜻 뿐이고 성취하지 못했다. 이 군에 있자 노유 손정준이 책 하나를 지니고 와 보여주는데 곧 <오륜전진>을 쓴 것이었다. 아주 다행이다 싶어 즉시 강유휴 관찰사에게 고하고 간행케 하니, 풍속교화에 만에 하나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嘗於數十年前 得見五倫全傳於諺書中 極其可歡 欲爲翻譯 行布於世 而有志未就矣 郡居老儒孫廷俊 袖一卷書 來示余乃書五倫全傳也 深以爲幸 即告于觀察使姜公裕 後入梓行布 庶幾有補於風化之萬一矣)

한희설의 위 발문을 통해 볼 때, 당시에까지 <오륜전진>이 전해져 왔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한문으로 재 번역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희설이 구해본 <오륜전진>이 낙서거사의 한글본을 바탕으로 한역된 것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한문본의 내용이 원래 <오륜전비기>에서 보여주는 희문의 요소가 거세되어 있다는 점에서 손정준이 가지고 있던 한문본은 일단 조선에서 재구성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특히 제목이 <오륜전진>이라는 점에서 일단 낙서거사의 번역본을 참조하여 재한역한 것이 아닌가 한다.

한희설이 한문본을 간행한 점으로 볼 때, 그 가상의 독서 대상은 일단 일반 백성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식견있는 성인의 유자도 아닌 듯 하다. 그가 생각한 독서대상은 학문의 길에 접어드는 사대부의 자제들이거나, 사대부집 부녀자가 아닌가 한다. 사대부의 자녀와 부녀를 위해 만들어진 윤리서로 1775년, 영조 51년에 나온 李德懋의 『士小節』이 있다. 『사소절』이 생활에서의 예절을 실증적인 인물의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라면 <오륜전진>은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의 형식으로 재구성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한희설이 <오륜전진>이라는 윤리 선양의 의도가 강한 책을 간행코자 한 것은 임병 양란 후 초래된 권위와 이념 부재의 공백을 메우고자 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 결과 체제붕괴의 위기의식을 극복하고 옛질서를 회복하려는 기독교 수호의 차원에서 이 책을 간행하고자 했을 수도 있다. 어쨌든 <오륜전진>의 번역·간행은 소설을 이용하여 유교이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한 전교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바로 소설의 효용적 가치를 쾌락성 보다는 교훈성에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오륜전진>은 소설이 표현상의

불경한 문체나, 내용상 풍속을 해치는 것이 아니면 얼마든지 유자들에 의해 인정될 수 있는 문학양식임을 보여준다 하겠다.

V. 마무리

〈오륜전전〉은 중국의 〈오륜전비기〉를 모체로 1531년 낙서거사가 윤색·번역한 것으로 이후 한글로 간행되거나 한문으로 재번역되어 간행되기도 했는데, 이는 조선조의 訓民政策과 유자들의 警民意識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특히 조선조의 언해작업이나 번역작업은 유교 이념의 구축과 확산이라는 이념지향적 지평 위에서 시행되었는데, 이는 지배이데올로기의 구축이라는 측면과 정치 이념의 일상생활화라는 유교 이념의 현실주의적 세계관에 기인한다. 때문에 삼강오륜이라는 유교의 덕목은 시조, 경기체가, 가사 등의 시가 양식의 문예물과 각종 훈민시를 통해 경민의식의 고취라는 측면에서 보다 쉽게 수용될 수 있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여 결론으로 대체하면 다음과 같다.

1. 〈오륜전전〉은 강상의 윤리를 전달하고자 한 점에서 훈민의 내용을 담고 있는 시가 장르와 같은 지평위에서 윤색·번역되었다. 시가 장르가 내용을 함축하여 기억 구술할 수 있게 하기에 편한 반면, 산문은 이야기의 형식을 빌림으로써 오륜의 윤리를 더욱 개연성있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교적 차원에서 소설이 채용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2. 조선조 소설에 대한 긍정, 부정에 대한 논의를 〈오륜전전〉에 확대 적용시켜 보았다.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동시대 작품인 신호의 『기재기』 발문을 참조하였다. 그 결과 〈오륜전전〉의 윤색·번역자나 발문자는 소설의 간행에 주저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를 적극 확산시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는 조선조 사대부들이 갖고 있던 부정적 소설관 혹은 소극적 소설 옹호론에 비해 훨씬 긍정적인 것이다. 이는 윤색·간행자들이 소설양식을 유교 이념의 선양에 이용할 수 있다는 전교적인 소설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조선조 사류층에서 논란이 되었던 소설시비론의 쟁점은 ‘鑿空構虛’ 그 자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소설의 문체와 그 내용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오륜전전〉은 〈소학〉, 〈근사록〉, 〈동몽선습〉, 〈사소절〉과 같이 유교 수신서의 내용을 담고 있다. 후자의 글들이 사람이 지켜야 할 인륜세교를 항목별로 나열하고 있는 건조한 설명적 내용임에 반해, 전자는 이러한 내용을 실천하는 극적 인물의 행위를 이야기를 통해 보여줌으로써 예상되는 결과까지도 제시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 때문에 〈오륜전전〉은 여타의 수신서보다도 훨씬 효과적으로 전교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효용성을 갖고 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륜전전〉은 동시대의 다른 소설과 비교해 볼 때 이야기가 가져다 주는 흥미로운 부분이 제거되어 있어 훨씬 무미건조하다. 이는 〈오륜전전〉이 수용자의 요구에 의해서 간행되었던 것이 아니라, 간행자의 문학적 기호나 교화의지에 의한 일방적인 의도에 의해서 간행된 결과 때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